

1. 돈 - 13

유업 (遺業: INHERITANCE)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벧전 1:3-4)

* * *

1.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이다.

우리는 성경에서 '아들'이란 단어를 자주 접한다. 성경은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호 11:1),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하고(예수님 스스로도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심, 요 10:36),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말한다(갈 3:26; 롬 8:14).

'아들'은 이 세상과 관련해서만 쓰인 용어일까?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다시 죽을 수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고, 부활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셨다(눅 20:35-36). 우리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천국에는 성별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임을 알고 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한글성경이 '자녀'로 번역한 용어가 원어에서는 모두 '아들들'이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번역도 원어에서는 '이 세대의 아들들이 혼인도 하고 혼인 상대가 되기도 한다'로 나온다. 여자의 혼인도 '아들'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또한 '부활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도 원어에서는 모두 '아들들'이다. 예수님이 '아들들'이란 용어 대신 '자녀들(children)'이란 용어를 쓰셔야 하지 않았을까? [한글개역성경이 '아들들'을 '자녀들'로 번역한 것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성별의 차이가 없는 저 세상의 현실을 설명하실 때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굳이 '아들들'로 묘사한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남녀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을 매우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버지의 유업은 아들이 이어받았고(창 15:4; 25:5), 상속받을 아들이 없는 것은 집안의 심각한 문제였다. 딸이 대신 상속을 받거나 딸도 없으면 친족이 기업을 받는 규정이 있었지만(민 27:8-11), 그렇다고 해서 집안에 아들이 없는 문제가 해소된 것이 아니었다. 아들이 조상의 기업을 상속하지 못할 경우, 약속의 땅에서 지파들마다 분배를 받은 기업의 보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약속의 땅과 ‘아들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현실과 그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마 25:34)였다.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누구인지를 명백하게 가르치시려고 당대 사람들의 개념 속에서 ‘아들’이란 단어를 거듭해서 쓰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성경을 다시 보면 ‘아들’이란 단어와 ‘상속’이란 단어가 함께 묶여 나오는 여러 구절들을 볼 수 있다(히 1:2; 롬 8:17; 갈 4:4-7; 시 2:7-8). 심지어 하늘 시민이 된 그리스도인들을 일컬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히 12:23)이라고 한 것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다.

갈 4:4-7 _____

Q. 성경이 남녀의 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은 무엇인가?

갈 3:26-29 _____

* * *

2. 믿는 자는 영원한 기업의 ‘보증’을 소유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친히 낳으신 아들이 되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지위이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장자의 명분을 죽 한 그릇에 판 에서의 행동이 망령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창 25:29-34; 히 12:17). ‘장자의 명분’은 현재 자기의 정체성이자 ‘미래의 삶에 대한 보증’인데, 에서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하고 그것을 아주 가볍게 취급했다. 그가 잠깐의 배고픔을 ‘죽음으로 확대하여 보는 눈’은 가졌으면서 미래의 삶이 오늘 소유하고 있는 장자의 명분에 달려있다는 것을 연결해서 보는 눈은 가지지 못했던 것이다. 그가 눈물로 호소하며 축복을 원했지만, 미래의 축복은 그가 판 ‘장자의 신분’에 이미 주어져 있었다. 그가 다른 축복이라도 받기를 원했지만 그것은 한시적 삶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 불과했다. ‘다른 축복’을 원했다는 사실 자체도 그에게 ‘영원한 가치’를 볼 눈이 없었다는 것을 재차 확인해 주는 것이다.

잃어도 되찾을 수 있는 것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잃으면 영원히 잃는 것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도 현실의 필요에 따라 헌 신 버리듯 하고, 필요에 따라 다시 얻을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에서 같은 사람’일수록 한 번 장자는 영원한 장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교리를 이용하고 싶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리를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낫다고 말씀하신다(벧후 2:20-22). 그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 그들의 불의를 더욱 불의가 되게 한다. 그것을 알면서 다시 세상에 얽매인다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는 그들이 영원히 기업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증으로 성령을 주시고(엡 1:13-14),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해 주시기 때문이다(벧전 1:3-5).

벧후 2:20-22 _____

엡 1:13-14 _____

성령을 보증으로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다(행 20:32).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행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요 14:26; 갈 5:16). 결국 성령을 기업의 보증으로 받은 하나님의 상속자는 ‘땅에서’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유업으로 받으며, 나중에 ‘영원한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기업을 현실로 얻는 것이다(엡 1:13-14).

엡 1:13-14 _____

Q. 내가 현재 지닌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에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바뀐다는 것을 알 때, 나는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미래가 되기를 가장 소망하는가?

히 6:17-18; 시 119:111 _____

* * *

3. 우리 그리스도인의 몫은 끝 날에 주어진다.

하나님의 기업을 약속으로 받은 사람은 ‘여기서 누리는 삶’을 소망하지 않는다. 오히려 예수님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 19:29)고 하셨다. 특별히 ‘전토’를 버린다는 것은 이 땅에서 부모에게서 받은 ‘유업’으로 누리기보다 주를 위하여 모든 소유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한다는 의미이다. 하물며 부모가 유업을 물려주지만 기다리며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사람의 태도가 아니다. 어떤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यो”(마 5:5; 시 37:11)라는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땅에서 누리며 사는 삶을 상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구약이 보여주는 가시적 ‘약속의 땅’조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이듯이 성경이 약속하는 ‘땅’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도달할 하나님 나라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래에 관한 여러 환상을 다니엘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후,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남기고 다니엘서를 마무리하게 하셨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단 12:13). 여기서 “끝날”은 앞으로 도래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하나님 백성의 ‘누리는 삶’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받아 살게 될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것이다. 오히려 우리는 땅에서 삶을 풍요롭게 누리려 하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할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경고하는 말씀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엡 5:5; 고전 6:9-10; 갈 5:19-21). 우리가 영원히 멈추어 살 곳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이다.

갈 5:19-21 _____

Q.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시작되는 ‘좋은 날’을 보기 원한다면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버려야 하며, 어떤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벧전 3:9-12 _____

* * *

기도

우리를 아들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 전에 예비하신 그 나라를 상속할 자들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우리인데 세상을 좇아 땅의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 살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알려주신 영원한 그 나라의 기업을 사모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